

더 나은 세상을
고민하는 소셜벤처
실무자 6인의
생생하고 다양한 이야기!

절 필요로 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서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면에서 뿌듯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표면적인 요소만으로는 모든 걸 충족시킬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넓게 시야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양한 경험이 발판이 되어야 그 위를 딛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삶의 중요한 가치가 일에서도 나타나고, 일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제 삶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해요.

다양한 영역 속에서 기업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들이 다양해진다면 좋은 사회가 아닐까요?



제 자량은

아니지만

실무자 6인의 이야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기업



제 자 랑 은 — 아 니 지 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기업
실무자 6인의 이야기

목차

“
제 자량은 아니지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기업
실무자 6인의 이야기
”



01 강동구협동조합, 도시재생지원센터 김태희	04
02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전략기획팀 컨설팅 팀장 변준재	20
03 커리어투어 홍보 마케팅 팀장 안주연	34
04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매니저 케빈	48
05 신촌, 파랑고래 코디네이터 이주선	60
06 상상우리 매니저 조민정	74
편집후기	85

01

활동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과연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을까? 영어로 표현하면 '액티비스트'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활동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어떤 한 표현으로 정리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다양한 모습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활동가로 활약하고 있는 김태희 활동가님을 만났다.

김태희

강동구협동조합,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가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강동구에서 협동조합 활동도 하면서 성동구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희 활동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식지와 기자단 활동지원이 주 업무고 주민강사모집(신규주민발굴), 문화강좌기획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열심히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도시재생의 기본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 도시가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주민의 의견을 계획에 담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해 지역의 주민들이 동네를 위해서 재생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서 주민 주도적으로,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에서 활동가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도시재생을 위해 서울시 예산을 받는 준비과정에서 마을 활동가님이 필요한 거고, 주민의 의견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중계해 주는 중간 역할이 활동가로서의 역할입니다. 그 요청이 반영되면 도시재생센터에서 일을 진행하죠.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주민 스스로가 운영주체가 되어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센터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소식지와 관련된 일정을 조율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저희가 내는 소식지는 격월간지거든요. 만약 10월 발행일이 25일이라면 미리 원고를 완성해 교정 교열로 넘겨야 하고, 검토하다가 디자인으로 넘기고, 인쇄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계속 수정하게 되죠. 거기에 놓치는 오타 부분들도 있고, 그 전달인 9월은 한 달간 원고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목차 정리, 각 사업들이 맡은 파트에 대한 글감을 정하고 취재 일정 조율 등, 소식지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 조율을 담당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소식지, 기자단 활동지원이 주 업무고 주민 강사 모집을 통해 신규 주민을 발굴하고, 문화강좌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의 만족감.
그리고 한 프로젝트가
끝난 뒤의 후기나 설문조사를
보고 느끼는 감사함도 있겠군요.
그런 부분들이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주 업무 외에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상인회 운영 관리도 맡고 있어요.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정되면 필요한 교육들을 구성하고, 때로는 다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참 잘 가요.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어떤 느낌으로 기획해야 하는지에 대한 틀을 잡아두고, 세부적인 요소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원래 저는 평범하게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사를 하고 독립을 하게 되면서 도시재생이라는 분야를 자연스럽게 접했어요. 그 동네가 도시재생 전 단계의 희망지역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청년으로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해 참여했고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분야에서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동네에 계시다가 도시재생에 대해 알게 되신 건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관심을 갖는 첫 시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가 이해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분야와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더 습득이 빠르다는 말씀이시죠?

센터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돼요. 주민, 용역사, 주최자, 기관, 주택설계사 또는 건축사 등 다양한 분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다뤄야 하니 법적인 부분도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전문가적으로 주민들의 의견과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랑 만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면 사람들과의 연결이 더 쉬워지죠. 만남과 모임을 좋아하신다면 더 잘 맞지 않을까 싶네요. 보통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쪽으로 전공하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죠.

아까 법적인 부분도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런 용어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신 적은 없으셨나요?

분명히 많지요. 관련 전문 지식들을 자문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신데요, 법률적인 사항 관련해 내부 교육 진행을 요청드릴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배울 때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코디네이터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요청하거나 관심을 보이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계속 찾고 모을 수 있어요. 타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코디네이터 분들과의 논의를 통해서도 배우기도 하구요.

이 일을 하시기 전의 직장에서 힘들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큰 규모의 회사에서는 일한 경험이 없지만, 회사의 크기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마찰이 있어요. 다만 작은 회사에서는 대표의 발언권이 더 세기 때문에 제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문제가 결국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저의 성장에 제약을 받으면 이 회사에서 내가 유용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더라고요. 과거에 저는 건축 관련 회사에서도 일했었는데, 건축 분야의 특성 탓도 있겠지만 상하관계가 경직된 경우가 많아서 의견이 위아래로 오가는 과정에서 의견이 묵살당할 때 이게 내게 맞는 일인지, 무슨 보람이 생기는지 물음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의 나름대로의 극복 방법이 있으셨을까요?

퇴근하고 난 뒤 다양한 모임들에 참여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모임을 찾아다니고 강연을 듣고, 같은 주제로 모인 사람들과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나누는 것들이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죠. 회사에서는 주어진 일만 하면 끝이지만, 모임은 제가 원해서 찾아다니는 것이니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저 자신과 저의 관계망이 많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견 회사에서는 쉽게 느끼기 어려운 즐거움이었죠.

그런 활동들이 여러 모로 자양분이 되셨겠네요!

물론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문득 '이렇게 좋은 모임들이 왜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물음이 생겼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토대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로서 움직이는 곳들이 다른 연고없는 경우도 많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 혼자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에, 제가 사는 동네에 눈을 돌리게 된 것 같아요.

또다른 부분으로는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설득하는 요령도 생기게 되었는데, 센터에서 공공기관 담당자 분들과 대화하는 방법이나 서류작성법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하셨을 때랑 지금 하시는 일을 생각했을 때, 일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생각의 차이가 있으실까요?

불안감은 이전 회사가 덜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의 일은 다양한 사람들이랑 관계가 생기다 보니까, 각자의 의견이나 주장을 할 때가 있고 일의 범위도 상황에 따라 늘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요청이 들어오면 내 일만 하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회사는 그 회사 안에서 내 일이 있을 때는 다니면 그만이었는데, 여기서는 경험을 쌓아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지만 변화 없고 안정된 직장 생활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또다른 부분이라면 조직 문화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일을 하다 보면 교수님과 건축사무소 파견 인력 분들과 일해야 할 때가 많은데, 고정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1주일에 2번 정도의 빈도로 오시기 때문에 사내인력이 아닌 외부인력이 왔다갔다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자주 있진 않다 보니, 소통이나 협업의 방법에 있어서 조직이 가지는 문화에 특성이 드러나는 게 있지 않나 생각해요.

외부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소등이나 협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이 일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혹시 기억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지역 내 상점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골목축제를 기획하다 보면 평상시에 잘 만나지 못했던 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은데, 그 프로젝트에서 제가 소식지 발행을 맡았거든요. 기사단을 모으고 관리하고,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해야 하죠. 이렇게 평상시에 잘 몰랐던 분야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험은 일반 회사에서는 쉽게 얻기 힘들죠. 그런 부분들이 기억이 많이 남네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일이 많으신데, 도시재생 관련 일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 맡은 업무가 무엇이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채용되어 왔을 때는 이미 기사단 모집은 끝났고 창단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날을 3일 남겨놓고 제가 출근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고하고 모집했는지. 창단식에 뭘 준비해야 되는 지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제가 담당하게 된 거예요. 계획안만 받아보고 익혀야 했었죠.

예전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제가 복합문화공간에서 했었는데,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많이 헤메거나, 정말 가만히 자리에 앉아만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인수인계가 기획안 하나만 가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능동적으로 파악하면서 출근하고 사흘 동안 거의 야근하면서 진행했던 기억이 있네요.

다른 부서의 업무를 통해서 배우시는 것도 있겠군요.

물론이죠. 여기에서는 집 수리 관련해서 가끔 가로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단어가 종종 등장해요. 인근 대학인 한양대학교와 연계해서 집 수리 관련 봉사활동을 연계해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건축이나 주택 관련 전문 코디네이터 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분야는 제가 어떤 특정한 일만 진행한다면 잘 모를 수 있는 분야들이죠.

“ 일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겪는 것들이 경험이고,
그게 일의 본질이라 생각해요.
그 일 안에서도 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고민하는
모든 순간들 또한 일의 연장선인 거죠. ”

학교와 협업할 일도 있으신데, 협력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말 폭넓은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요. 학교와 상인들뿐 아니라 홍보 담당, 주민 소통 담당, 협의체 구성 인력, 분과를 분석해 각종 사업을 정리해 주시는 분들, 인턴 분들. 당장 생각나는 분들만도 이 정도네요.

이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나 보람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만족감이죠. 프로젝트가 끝난 뒤의 만족감. 그리고 한 프로젝트가 끝난 뒤의 후기나 설문조사를 보고 느끼는 감사함도 있겠군요. 그런 부분들이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또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는 부분이 분명 피로감이 들 때도 있지만 결과로서 결실을 맺을 때마다 하길 잘 했다는 보람,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셔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될 때. 그런 보람이 바로 원동력이죠.

일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물론 있죠. 저희가 하는 일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조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유행의 시대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제약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의견들을 듣지 않고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화상회의를 통해서라도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던 걸 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니깐요. 해야 할 말, 하면 안 되는 말에 대한 구분, 문서로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는 법, 정해진 예산의 틀에서 움직이는 법들 또한 계속 조심하면서 배워나가는 것들이죠.

힘든 순간을 극복하셨던 적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 직장에 근무하기 전에도 마을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공간은 1층은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였고, 2층은 만화방, 3층은 작가님이 상주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공간이었죠. 그 경험 덕분에인지 일을 사무실 안에서만 하다 보면 너무 지치고 재미없게 느껴져요. 그래서 간혹 생기는 외근일이나 밖에서 먹는 식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일 때문에 고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들과 마찰을 빚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서로 이야기하면서 쌓일 수 있는 오해와 같은 부분들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해결한 문제들 또한 있죠.

요즘 관심이 있으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택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배우고 싶고, 서울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프리랜서처럼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나 비건 제품들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보고 있어요. 쓰레기, 주차 문제에 대한 걱정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고 있지요. 주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립대 생활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 혼자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습관화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런 공부도 하고 있고, 제로 웨이스트 문제도 제가 정리를 제대로 못 해서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랍니다.

활동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 관심에서 시작하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먹거리 같은 것도, 철학적인 시작보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요즘은 건강한 먹거리가 이슈화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사람들이나 음식들에 집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음식들이 좀 더 비싼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서 시작해 좀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작되는 거죠.

현재 가지고 계신 고민이라고 하면 이런 환경 부분이든 아니면 앞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크신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해야 계속 장기적으로 할 수 있을지, 내가 나이 먹어서도 이쪽에서 계속할 수 있는 건지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분위기가 바뀌고 있잖아요.

“ 거창한 것이 아닌,
좀 더 작은 부분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

그리고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한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어요. 제 일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인지, 내가 어떤 일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들, 소비된 물건들에 대한 정리의 경험, 주거의 안정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경험하는 만큼 생각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활동가님이 주로 하시는 고민과, 이를 극복하는 본인 나름의 방법을 공유해 주신다면?
사실 고민하는 부분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택들의 연속들이니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줄일지가 관건이죠.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과정 하나하나에서 성취감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에너지가 소진될 때 끌어올리시는 나름의 방법이 있으시다면?
저도 한없이 부정적일 때는 정말 힘들고 우울하기도 하고 남들한테 툭툭대기도 하거든요. 다만 그런 표출이 습관적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에 유행하던 감사 일기 쓰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첫 직장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좋은 직장에 가는 것만을 목표로 두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열린 사고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중함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신중해질수록 결정이 느려지게 되고, 더 많은 경험을 할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돌아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꼭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감하게 행동하고 틀을 부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잘 알지만 그런 과감함 끝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열린 사고로 모험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꼭 그 말을 해 드리고 싶네요.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이 뭔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봐요. 제 말이 꼭 그 사람한테도 적용되어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걸 옳다고 강요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구요. 거창한 것이 아닌, 좀더 작은 부분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만약 커피를 좋아한다면, 사람들이 당장 거창하게 바리스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걸 정말로 좋아했던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쌓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활동가님은 본인이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찾는 과정을 어떻게 치르셨나요?

제가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것들이 일까지 연결되는 데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연결되다 보니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특정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려는 경험들이 쌓여서 또 다른 결과물로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선택들의 처음에는 분명히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스스로가 더 옳게 판단하는 부분으로 가는 돌파구를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돌파구는 어디에서 찾으셨나요?

과거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꼭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임에 따라서 균형도, 여유도 생기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조바심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풀어내는 것들을 통해 나에게 어떤 것이 더 맞는 것인지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고민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다양한 일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경험하는 만큼
생각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

현재의 일에 만족하시나요?

여러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온전히 지금에 만족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후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과 선택들의 연속인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을 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만약에 이쪽 일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일만 고집하며 일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들었는데, 다만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통해 좀더 넓은 분야를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창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 가족도 배워봤어요.

활동가님이 생각하시는 활동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쉽게 말해서 지역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다 활동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네에서 동네의 일을 하는 분들은 모두 활동가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활동가님이 생각하시는 일이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겪는 것들이 경험이고, 그게 일의 본질이라 생각해요. 그 일 안에서도 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받아들이나에 따라서 고민하는 모든 순간들 또한 일의 연장선인 거죠. 단순히 보기에 일이 아닌 부분들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어요.

활동가님이 앞으로 살고 싶은 삶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릴 때는 뭐가 되고 싶냐는 질문을 들으면, 지금은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가르치는 역할을 맡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선생님은 아니지만, 인터뷰 요청도 오고 강의를 할 수 있는 동네에서 마을 투어를 해달라거나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기획자도 되고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것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 결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눈이 내릴 때 신나서 놀러나갔다가, 짜라기가 손에 닿아 녹아 없어질 때의 아름다움을 결정을 바라보며 느낄 수 있었다. 물론 눈이 손 위에서 녹아 없어지는 순간은 찰나였지만 그 눈의 결정의 아름다움이 하늘에서 내려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분명히 오래도록 걸릴 것이다. 눈의 결정의 아름다움만큼, 시간을 들여 하늘로 올라가 내려오는 눈의 결정이 수많은 파장의 색으로 빛남과 동시에 바라보는 각도마다 다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한다.

활동가라는 직업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활동가님의 모습에서 눈송이와 같은 다양한 아름다움을 다시 본 기분이 들었다.

02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중 하나가 재무적 건전성일 것이다. 설립자가 회사를 처음 세울 때 가지는 목표가 그 회사의 성격을 결정짓지만, 그와 동시에 그 사업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전적 안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재무적 안정성은 사회적기업에서도 중요하다. 오히려 자금 조달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한국사회혁신금융은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접근성을 강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이번 인터뷰에서는 컨설팅과 심사를 담당하는 변준재 전략기획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변준재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전략기획팀장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변준재라고 하고요, 저는 2017년에 입사를 해서 컨설팅 업무를 했고 지금은 전략기획 팀이라고 해서 회사 전반적 운영과 자금 및 기업 성장에 필요한 컨설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사회적 금융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적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더 수월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하실 때 내신 출자금의 10배까지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모으는 것이 저희의 역할 중 하나이고, 모은 재원을 잘 운영하면서 기업들에게 필요한 직무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같이 수행하고 있어요.

팀장님은 지금 일하시는 직무와 전공이 일치하셨나요?

전공은 대학교 진학할 때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는데, 많은 문과생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저도 경영학을 주전공으로 선택했어요. 부전공으로는 경영학과 다른 관점을 배우고 싶어서 정치학을 배웠구요.

주로 하시는 업무는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저희의 회원 기업이 한 140개 정도 있는데, 자금 대출 관련은 회원사들 대상으로만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컨설팅이나 교육 같은 경우는 회원사들을 위한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전국에 있는 사회적경제와 관련 기관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더 많은 기업들과 일하고 있구요. 이곳에 들어온 후 첫 2년은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회적기업 운영 컨설팅을 실행하는 역할을 했고, 작년에는 주로 자금 관련된 업무들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올해는 전략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사에 전반적인 운영 방향, 자금현황, 현금흐름 등을 관리하고 있어요.

기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금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기금 운영은 저급리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사회적 기업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곳이다 보니 사회적기업에 어떤 방법으로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평가나 방법론 연구가 국내에 소개된 이래로 평가 기준을 확대해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금 대출을 운영하는 심사역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에 들어가죠. 기업의 매출액, 이윤 상황, 지속성 등에 대해 서면 및 대면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요. 이 과정에서 수치를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성과 시장성에 대한 감각이 중요하죠. 모든 업종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해당 기업이 본인들의 시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비즈니스 모델을 잘 짜려고 노력하는지, 향후 투자받은 자금에 대한 상환 계획의 검토 등, 정리하자면 사회적기업의 머리와 마음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직무라고 할 수 있죠.

팀장님께서 전에 다른 곳에서 일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와 지금이랑 생각의 차이가 있으신가요?

전에는 학교 졸업하면서 보통은 공개채용 공고들이 뜨니까 이름이 많이 알려진 데나 연봉이나 이런 걸 보면서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당시에는 다른 정보들이 없으니 그런 부분들만 보고 판단해야 했었죠. 7년 동안 일하고 그만두기 전에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부분이 좋아서 사회적경제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실제로 사회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덕분에 제가 하고 싶고 즐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피부에 많이 와닿는군요.

“ 사회적기업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곳이다 보니
사회적기업에 어떤 방법으로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고요. ”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경험도 있으셨나요?

제가 처음에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영리와 사회적가치를 함께 추구한다는 개념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프로보노(Pro bono,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 약어로, 개인의 재능을 사회적 가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활동을 말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때 활동하시던 지금의 대표님을 만나뵈게 되었어요. 회사를 다니시다가 그만두고 회사를 차리셨던 거였는데, 그 인연으로 함께해서 4년이 흘렀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팀장님 나름의 기준이 있으신지요?

보통 직업을 선택할 때는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즐거운지 아닌지의 세 기준을 두고 직무를 바라보고, 그 중 두 개는 겹쳐야 일하는 사람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돈을 예전보다 잘 벌지는 않지만 두 개는 저한테 맞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다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으시다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낮은 급여로 인한 허탈감을 상쇄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는 사회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셜벤처나 사회적기업이 설립 이념과 미션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하면, 적어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수익모델도 그 이념과 마찬가지로 확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기업 활동을 하면서 좋은 일은 기부만 하

겠다는 마인드는 소셜 미션을 잘 녹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기업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자체가 사회적가치와 같이 늘어나야 되는 게 돼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셜벤처라면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적 재료 사용의 확대와 그에 따른 수입·지출 비율의 건전성도 따져야 하니까요. 단순히 2~3년 정도만 사업을 영위할 것이 아니고, 그 회사의 목적성과 비전, 미션을 유지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소셜기업이 가져야 하는 목표라 생각하죠.

그렇다면 팀장님이 보시기에 사회적가치는 어떤 의미신가요?

좋은 질문이시네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영리활동을 하면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고, 그러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과 경쟁하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사회가 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자 하는 열의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들이 많아지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죠. 물론 사회적기업이라는 건 기업이니까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충분한 수익모델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해야 되죠. 물론, 기업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기업이 가치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을 거예요. 다양한 영역과 삶의 방식들을 존중하고, 함께함으로써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사회적 가치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까요?

이해도가 다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기업을 아우르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의 기준을 잡기가 어렵죠. 저희는 대표님이나 실무자 분들을 모시고 상담을 통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둘지 정하려 하는 편입니다.

공교롭게도 처음 제가 왔을 때는 직원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에 일을 배울 때 제가 능동적으로 배워야 했던 부분도 쉽지 않았습니니다. 이제는 규모가 커진 후에 팀원들 사이의 감정적인 문제나 조율이 어려워지더라구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분명히 조정해야 하는 갈등이 생기게 되고, 팀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런 조율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니까요.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하면,
적어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수익모델도
그 이념과 마찬가지로
확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기업 활동을 하면서
좋은 일은 기부만 하겠다는 마인드는
소셜 미션을 잘 녹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보람이 있으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지원사업 또는 신용 관리를 진행하면서 회원사 기업들이 신청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실 때 보람을 느끼죠. 컨설팅을 진행할 때는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피드백이 좋을 때 업무의 목적을 잘 이룬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일을 책임감 갖고 진행해도 좋은 피드백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으니까요.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런 순간들은 계속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어느 하나가 기억난다고보다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초연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외부 전문가 풀을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강사에 대한 평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해드린 것처럼 이해 수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평도 있거든요. 노력을 들여 준비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으면 심리적인 타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초연해질 필요도 있는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취미가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전문학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업무와 당장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좀 더 나이를 먹고 세상을 보는 시야 같은 것들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전도 문학의 범위 내에서 그 시대의 생각들을 표현한 것일 텐데, 시대는 시간에 따라 늘 변하는 만큼 시간이 지나도 글이 추구하는 본질과 성찰이 있기 때문에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도 사랑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지금 제가 일에 몰입하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예전 선인들의 생각이 녹아들어간 고전을 읽으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의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팀장님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실까요?

컴플레인이 발생하면 제가 연락을 드려야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연락해서 어떤 내용들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어보면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하는지가 느껴지죠. 저는 그래서 좀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메일보다는 전화를 좀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을 읽으면서 대처하는 것이 단순한 사실 전달보다는 마음을 더 터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그와 같은 형태로 경감하거나 허심탄회하게 푸는 방법을 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제 운동으로 푸시는 분도 있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도 있고, 잠자면서 푸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은 좀 피하지 않고 그냥 부딪혀서 풀 수 있는 데까지 한 번 풀어보는 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인 거 같아요.

앞으로 목표하시는 삶이 있으신가요?

대단한 목표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당장 장기적인 목표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매 순간을 열심히 살피, 이제 결혼한 지 5년 된 아내와 오손도손 알콩달콩하게 사는 게 목표라면 목표랄까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 나오는 초콜릿 일화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는 과자나 초콜릿 먹을 때 그 중에서 제일 맛있게 보이는 것부터 먹어나가는데 그럼 마지막 한 조각까지 가장 맛있는 것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인드로,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충실히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팀장님은 지금 일하시는 포지션에서 어떤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조직이나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소통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업에 따라 사내문화가 수직적일 수도, 수평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 문화에 맞는 소통 방법이란 게 분명히 존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에 조화되는 소통의 스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쪽 영역에 계신 분들은
스펙트럼이 다양하시지만,
스스로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강한 분들이
모이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를 짚자면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맡은 일은 내가 잘 끝낸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더 노력해서 잘하려고 할 마음이 생길 테니까요. 일이 항상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더 나은 결과를 유도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에 더 맞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쪽 영역에 계신 분들은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스스로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강한 분들이 모이시는 것 같아요.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론들도 다양하지만, 확신을 갖고 일한다 하더라도 흔들리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바뀌는 것에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 오래 근속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데 덜 관심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지 않으면 와서도 뭔가 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구조가 잘못돼서 그렇다기보다 중심을 잡기 힘든 것들이 막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힘들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본인이 좀 더 재밌고, 좀 더 배울 수 있고 좀 더 나은 방법이 뭘지 더 탐색하면서 그럴 수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일반기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미 있는 직업을 관두고 바로 뛰어드는 건 사실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용기와 무모함은 종이 한 장 차이니까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프로보노 활동 등을 통해서 먼저 사회적기업에 대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중사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지 좋은 일이라는 것 이외에도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한 뒤에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양한 직무 중에서 어떤 쪽을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험해 보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직무를 정하면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본인이 생각하는 직무의 정의가 실제 그 회사에서 일하는 범주와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히 마케팅이라고 해도 세부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요, 소셜 마케팅을 잘 한다고 해서 지면광고 등 과도 잘 맞다고 확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실무적인 부분을 본인이 경험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꼭 잡아서 부적절한 선택으로 실제 업무에서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사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도 고용을 창출하고, 실정법의 범위 내에서 영리활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경제쪽에 있는 기업들도 법인뿐 아니라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기도 하구요. 이처럼 다양한 영역 속에서 기업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들이 다양해진다면 좋은 사회가 아닐까요?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일을 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하면 결국 나에게 또 하나의 경험으로 쌓여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이 즉 일이라고 생각해요.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해요.

“ 다양한 영역 속에서
기업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들이 다양해진다면
좋은 사회가 아닐까요? ”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사회적으로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그의 이야기가 묵직한 울림을 주었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경제적 안정성을 다루는 그의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기업들이 더 오랫동안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잉크를 떨어뜨린 물에 장미꽃을 담그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잉크를 떨어뜨리고 나서 색상이 서서히 변하는 꽃잎처럼 어떤 바람을 담은 생각을 키워나간다면 그 바람을 담은 색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03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브랜드, 퍼포먼스,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중요도가 높지만, '당신은 어떤 마케터가 되고 싶나요?'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과연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분명히 그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어떤 종류의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마케터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안주연

커리어투어 홍보 마케팅 팀장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리어투어라는 진로교육 회사에서 홍보 마케팅쪽을 담당하고 있는 안주연 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 커리어투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진로를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교육회사이고 저는 거기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랑 교육 프로그램 홍보와 마케팅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처음 취업하셨을 때 바로 시작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주얼리 전공이니까 처음에는 아동주얼리쪽 회사로 취업을 했고, 거기서 출고와 CS 관련 일을 하다가 한 1년쯤 되서 퇴사를 했죠. 지금 일하는 커리어투어의 이사님과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이쪽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알바 제의가 들어왔어요. 면접 때 제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모습이 대표님에게는 좋아 보였나봐요. 그래서 인턴을 3개월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됐죠. 사실 저는 처음에 여기가 소셜벤처 그쪽인지도 몰랐어요.

만약 소셜벤처 기업이 아니었다면 어떤 곳에서 일하고 계실까요?

배웠던 분야가 주얼리쪽 계통이었으니, 만약 소셜벤처 쪽을 하지 않았다면 그쪽으로 더 나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급여는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급여는 연차가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인상되고 있어요. 내일채움공제도 가입해 있는 만큼 급여에 대한 불만은 딱히 없는 거 같습니다.

일이 끝난 후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소셜벤처에 다닌다고 특별한 생활을 하는 건 아니죠(웃음). 일반 회사원들이랑 비슷하게 생활해요. 가끔 친구들이랑 놀고, 끝나면 맥주 한 잔 하고 데이트도 하고, 남들이 하는 건 다 하고 지낸다고 생각해요.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소셜벤처는 어떠신지?

딱히 소셜벤처라는 카테고리로 나누고 싶지는 않고, 사람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거에 관여가 되어 있다면 모두 소셜벤처라고 생각해요. 취약계층을 돕는 일이든,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든, 삶 전반을 더 윤택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을 하는 곳 이 소셜벤처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정서적인 것들을 건드리는 일을 한다고나 할까요?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업들라면 모두 소셜벤처지 않을까 싶어요.

소셜벤처 기업만의 특징이 있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반 기업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가 포인트라면,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돕고 싶은 사람들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느냐' 라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다만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도 수익을 창출해야 하니, '어떻게 하면 비전으로 나아 갈 수 있으면서 돈을 벌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럼 일반회사가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 이런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시 는 건가요?

물론 일반 기업들도 사회공헌활동을 점점 신경쓰긴 하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원래 목 적에 비해서는 보조의 역할을 취하는 경우가 많죠.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같은 경우는 CSR이 추가 되고 영리성이 부수적이란 느낌이에요.

아르바이트 자리로 소셜벤처에 처음 들어오시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에도 소셜벤처에 대해 알고 계셨었나요?

이 영역도 사실 정규직이 되고 1~2년 뒤에나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소셜벤처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회사도 아니다보니깐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곳인가 보다' 하고 생 각했었는데, 이 회사가 하는 사업 분야를 소셜벤처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 때 알게 됐죠.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일이 즐겁다고 생각한다면
희생이 아닌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시면서 배워야겠다는 걸 언제 많이 느끼시는지?

교육 관련 회사다 보니 내담자들과 상담할 일이 많은데요, '상담사 자격증을 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발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모르겠지만 더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분야든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올해 말쯤에 상담사 관련 자격증 준비를 시작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배우고 싶으신 건 상담쪽이시겠네요? 원래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사실 심리쪽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데에는 다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와 같은 심리적인 분석이 상담하는 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랑 홍보와 마케팅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것이 많았죠. 사실 제가 따로 마케팅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왔는데, 회사에서 마케팅이 필요해서 하게 된 과정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마케팅과 관련된 일을 한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모집이 어려운 점도 있었고 실수도 많았지만, 3년차 정도 되니까 안정된 것 같아요. 실수를 아예 안하진 않지만 실수를 해도 제 선에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는 성장한 것 같구요.

실수라면, 어떤 게 있으셨나요?

실수한 게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웃음). 1년 차였을 때 단체문자를 개별발송이 아니라 전체발송으로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의 이메일도 전부 노출되어 버려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버리는 꼴이죠. 고객들한테 사과 이메일 보내라, 수습하라 정신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후에는 같은 실수를 절대 안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한 번 크게 실수하면 같은 실수는 잘 안하게 되니까요.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 일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여쭙볼게요.

제가 마케팅을 처음 하다 보니 실수도 많이 하고, 역량이 부족하게 느껴져서 이게 내 한계인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든 이후에 잘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종종 무기력증이 오기도 하고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1년 남짓 되는 시간 동안에 일이 익숙해져 봤자 얼마나 익숙해졌겠어요. '이건 내가 못하니까 안 되겠다' 이려고 튕겨나가죠. 결국은 이 일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아니었을까요?

일당백이 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인력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아요. 소셜벤처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지만, 돈을 벌어야 하니 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전에 한 번 해봤으니 이번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 때마다 '배워야될 게 많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회사는 배움터가 아니라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이드신 분들도 배우는 시대인데 젊었을 때 하는 경험은 더 와닿죠. 사회생활 자체가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거니, 실수한 후의 처리나 사과하는 법, 그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배워보고, 이 일을 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여쭙볼게요.

아무래도 소셜섹터나 사회적 기업 자체가 작은 기업들이 많아 업무량이 많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라 생각해요. '내 업무'가 아니라 '우리의 업무'가 되어가는 거죠. 전문성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소셜벤처에서 일하는 게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 가는 게 포인트니까요.

그 외에도,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일하는 양보다 금전적 보상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 손을 대야 하니까. 그리고 보면 확실히 바쁜 건 엄청 바빠요. 본의 아니게 야근을 해야할 때도 종종 있기도 하구요.

“ 절 필요로 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서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면에서 뿌듯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일이 즐겁다면 어느 정도 희생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이 즐거우면 좋죠. 즐거움과 금전적 보상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즐거움을 선택 하겠어요. 다만 그렇다고 금전적인 부분을 희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듯 저에게 금전적 보상이 다른 가치관보다 중요하지 않았을 뿐이니까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일이 즐겁다고 생각한다면 희생이 아닌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면?

비교한다는 생각이 들면 거기서 그냥 생각을 끊어 버려요. 더 이어져봐도 제게 도움이 안 되는 생각들이라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잠시 생각을 끊고 다른 생각에 몰두하거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연료가 될 다른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죠. 오히려 저는 변화 지향적인 사람은 아니라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중요하거든요.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더 열심히 해서 비교할 수 없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결국 비교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비교할 수 있지만 그게 열등감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왜 저렇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빠지면 열등감으로 빠지고, 그런 건 좋을 게 없으니까요.

팀장님은 이 일이 본인에게 맞는 일이라 느낀 건 언제쯤이신가요?

하다 보니까 쌓이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 일을 시작하고 1~2년까지는 제가 홍보 쪽에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지 뭔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한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 역량이 높아진 것이 체감될 때가 있어요. 그 때 '아,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잘 도움이 되었구나.'를 느꼈죠.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어떤 일이든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질릴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가 6개월이든, 1년 뒤이든, 생각날 때 또 해요. 그럼 그 때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시작 단계를 미리 밟아놨으니까요.

성장하는 데 굳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때에 따라 성장하듯, 그 일을 안 하는 동안에도 살면서 여러 경험을 하죠? 그럼 제 생각에든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고, 그 때 다시 해 보면 예전의 나와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물론 꾸준히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능력이 일취월장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뭐든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여러 어려움에도 이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보람이죠. 사실 힘들게 하는 것도, 힘을 주는 것도 대상자들, 즉 청년들이나 것 같아요. 생각만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청년들을 보면 힘이 빠질 때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되었다, 혹은 고맙다고 말해주는 참가자들이 있으면 힘이 나거든요.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하려면 보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없으면 일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가장 보람을 느꼈던 때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는 진로교육을 주로 하는 회사라 멘토링이나 진로 교육을 많이 진행하거든요. 참가자들께서 써 주신 후기를 보고 뿌듯함을 많이 느꼈어요. 주 대상자가 청년이다 보니, 사업의 기획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진로를 더 쉽게 찾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그런 고민까지 알아줄 줄은 몰랐던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 친구들은 참가하는 보람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후기를 보다 보면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프로그램 기획해 주시는 분들도 청년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해주신 게 보인다'라고, 고맙다고 적어 주신 후기가 많았어요. 그 때 뿌듯했죠. 열심히 하는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만족감? 그런 마음이 전해진다는 데에 보람을 느껴요.

소셜벤처에 취업하려 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어느 분야에 관심이 많고 어느 분야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한부모 가정 쪽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다문화 가정 문제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우리 사회에 산적한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할 분야를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때 느끼는 보람이 남다르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보람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팀장님같은 경우는 어느 분야에 특히 관심이 가지나요?

저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교육에 관심이 생겼지만, 특별히 교육의 빈부격차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수도권에 오지 않아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에 긍정적이랍니다.

소셜벤처 일이 맞거나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질적인 소득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의견을 관철하고 일에 대해서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면 여기가 잘 맞을 거예요. 저같은 경우는 절 필요로 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서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면에서 뿌듯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에서 보람을 찾지 못하거나, 일의 양이 늘고 주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여기가 진짜 안 맞을 것 같아요. 내 일만 하고 가자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맞지 않죠.

그런 분들은 왜 소셜벤처와 맞지 않을까요?

스타트업,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세 부류의 회사들은 항상 환경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교육 회사이지만 매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하고 바뀌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변화를 두려워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일하시기 힘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일반 기업에서 더 좋은 환경을 찾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셜벤처를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뇨, 그건 이 분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영상 자료로 소셜벤처의 희망적인 이야기, 그런 부분들은 좋아 보이잖아요? 자신의 보람을 위해서 일하고, 수평적 관계,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업무 시간의 변동이나, 여러 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담기는 어려우니까요.

진로에 고민이 있는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사실 다 힘들어요. 일을 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취업준비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거고.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도하는, 어떤 기회든 잘 잡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든 해보자는 마음이 절대 인생을 낭비하는 결코 이어지지 않아요. 지금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첫 회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회사생활 자체가 사회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아예 직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어느 회사를 가든 같은 직무쪽으로 가는 게 된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어느 회사로 가든 인내가 필요하니까.

혹시 본인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지향점이 있으신가요?

책을 한 권 써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 책에 실릴 이야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낼 만큼의 이야기들을 많이 만드는 게 목표예요.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많이 잃고 사는 것 같은데, 일하는 사람도 일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이야기가 담긴 책을 쓰고 강연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삶은 살면서 내 속에
쌓아둔 것을 바탕으로
정리해 마무리
짓는 것이라 생각해요. ”

팀장님이 생각하는 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일하며 사는 게 사적이고,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난 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날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일을 더 오래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달려나가는 모습이 상상되네요. 그래서 장거리 마라톤이 아닐까 합니다.

팀장님에게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쌓고 정리하는 것. 20대부터 70대 너머까지 지식이든, 관계든, 삶을 통틀어 많은 걸 쌓아 나가잖아요. 그렇게 쌓았던 걸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쌓은 것을 바탕으로 유산이 되도록 정리해 마무리짓는 것이라 생각해요.



처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모두의 경험 속에는 '처음'이라는 시기가 존재한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말처럼 때로는 해온 것을 모두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처음'이라는 단어 속에 자리잡고 있는 생각들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 혹시나 내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갈 지도 모른다는 바로 그 두려움 말이다.

본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 두려움과는 조금 다른 '낯설'이라는 면으로 처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바라볼 때 드는 그러나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게 되는 감정. 그것이 '낯설'인 것이다. 세상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만 돌아간다면 별다른 걱정이 필요 없을 테지만, 그런 이유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래서 '처음'은 두려움이 아닌 궁금함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분야의 길을 갈 수도 있었음에도 소셜벤처의 본질과 본인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안주연 팀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연히 내딛은 발자국 하나도 더 나은 방향으로 걸어나감을 통해 발자취로 바뀔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04

우리는 언제부터 사회를 배우게 될까? 그 개념에 대해 처음 접할 때는 아마도 학교에서 받는 교과서 제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안에 나오는 내 주변의 이야기들과 규율들이 '사회'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렇듯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서 성장하는 우리는 여러 문제들에 눈뜨게 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셜벤처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신 케빈 매니저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케빈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매니저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기 소셜벤처나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코워킹스페이스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케빈입니다. 이 일을 한지 4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며 소셜 생태계에 관심이 많아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소셜 생태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현재는 코워킹스페이스 운영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주로 입주 계약, 공간 관리 그리고 내외부 교육 및 제휴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소셜벤처'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과 닮았으면서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형태 모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이 제도권의 인증을 받는 동시에 그에 따른 의무가 부과되는 반면, 소셜벤처는 사업의 운영에 있어 조금 더 유연함을 가질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이쪽 일을 하신 건가요?

저는 사회생활 시작부터 소셜 생태계에서 경력을 쌓아왔어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소셜 생태계의 이야기나 메시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다만 처음에는 뚜렷하게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목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자라 온 환경이나 주변의 영향 덕분에 부의 불평등이나 사회문제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소셜 생태계를 알게 되고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서
사회적기업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가장 처음에 하신 일은 언제 하셨던 건가요?

대학교 재학 시절 학교에서 방학기간 동안 사회적기업 혹은 중소기업을 학생들과 매칭해서 파견하는 인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통해 처음 일 경험을 쌓게 되었어요. 당시 저를 포함해 3명의 학생이 함께 한 기업에 파견되었는데, 작은 프로젝트로 업무 매뉴얼을 함께 만들어 보는 정도의 일을 진행했어요.

그 일을 통해 어떤 것을 배우셨나요?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소셜생태계 특유의 따뜻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경험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당시 대표님이나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가끔 만나기도 해요.

다음 기업은 어떻게 선택하게 되신 건가요?

일종의 채용박람회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직장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 참여했던 여러 기업들이 있었는데, 제가 근무했던 직장의 담당자분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해주셔서 근무해 보고 싶다고 느꼈어요.

두 번째 회사에서는 어떤 직무를 맡으셨나요?

작은 조직이라 직무의 구분없이 여러 역할들을 수행했던 것 같은데, 기획 파트의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공모전이나 작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들을 주로 진행했습니다. 2년간 근무했었는데 처음 1년은 활동가로, 다음 1년은 정직원으로 근무했어요.

두 번째로 다니던 회사를 나오시게 된 계기나 고민이 있으셨을까요?

일 경험이 쌓이면서 제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급여나 대우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문화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저에게 조금 더 맞는 조직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의 업무는 마음에 드셨었나요?

업무는 즐거웠어요. 일이라는 건 각자의 강점과 약점도, 진행 당시의 상황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진행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하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 있는 중심 분야와 제가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이 맞았던 것 같아요.

만약 이 일을 하시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처음으로 돌아간다 해도 지금과 비슷한 일을 선택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들이 성향과 잘 맞는다고 생각되거든요. 만약 굳이 꼭 다른 직무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면, 형태가 무엇이 되었던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해볼 것 같아요. 자신의 색깔과 관점이 담긴 콘텐츠를 발행하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꽤 매력적인 작업이라 생각되거든요.

본인이 일을 정하시는 데에 일반기업과 소셜벤처에서의 선택이 다를까요?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흥미가 강력한 동기라고 생각해요. 어떤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느냐, 혹은 다양한 일을 두루두루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셜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니, 선택은 확실히 좀더 자유로운 것 같네요.

직업이나 일을 선택하는 최소한의 기준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슨 일이 되었든 제가 재밌고 즐길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보고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멋있고 재밌는 일이라고 말하더라도 제게 즐거움이 없다면 일하기 힘들어요. 이직할 때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급여 등의 대우를 생각한 것도 있지만, 제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진 조직에서 일하고 싶기도 했죠. 단순한 복지 문제보다는 일하는 방식이나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방향 등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 처음으로 돌아간다 해도
지금과 비슷한 일을
선택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들이 성향과 잘 맞는다고
생각되거든요. ”

일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정해진 답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부분과 업무적 즐거움 사이의 균형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맥락을 지켜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향후 커리어의 확장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구요.

청년들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힘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수도권에 많은 직장들이 몰려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거나 원하는 직장이나 아니면 직업군이 많이 몰려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게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되면 거처의 문제가 매우 크게 다가오는데, 집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급여가 확 높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교롭게도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이 아니라면 제도적인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구요.

주거나 금전적 문제로 고생하셨던 적이 있으신지요?

두 번째 직장을 다니면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함께 사는 룸메이트가 있어 부담이 덜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행운이라 할 수 있을 텐데, 반대로 지방에서 올라와 거주하셔야 하는 분들은 많이 고생하실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분야를 포함해서 직무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지금까지 맡았던 직무 등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제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양하게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상황과 기준에 따라 좋은 회사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저에게 좋은 회사는 우선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은 조직 밖에 경험해 보지 못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업무들이나 만들어가고 싶었던 부분들을 수행하거나 적용되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교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조화’라고 생각해요.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랑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강점과 약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팀원간의 인정을 통한 조화와 인간적 교감이 중요하죠. 경력이 비교적 적은 사람도 더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셜벤처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비대면으로 회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예전에는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이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되던 분야였던 것이 이제는 기본적인 소양이 되었죠. 솔직히 뭐가 전문적인 영역이라 생각해 도전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았던 영역이었어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생각 위에 시대의 변화에 맞춘 부분들을 쌓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의 회사에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꺼리는 청년분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작은 조직, 소위 스타트업이라 불리는 조직의 특징이라면 특징인 것 같아요.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점이 업무를 배우거나 수행함에 있어서 어렵거나 불편한 지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교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조화’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강점과 약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팀원간의
인정을 통한 조화와
인간적 교감이 중요하죠.”

소셜벤처 업계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로서 이 영역의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하는 일을 통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아닐까요? 일반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동료들이 많다는 게 좋습니다. 꼭 우리 분야에서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복합적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이해도도 남다르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소셜 영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만나신다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누군가가 추천하는 기업을 가는 것보다 자신에게 더 잘 맞는 회사는 어떤 성향의 회사인지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일을 즐겁게, 함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그 회사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소셜벤처 영역과 맞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 기업이나 소셜벤처 기업이나를 나누는 것보다, 희망하시는 직무나 회사의 사업 테마, 조직과의 결이 맞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 같아요. 조직이 추구하는 일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나와 잘 맞을지, 직무나 역할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직무를 결정하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취업 준비생이 계시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많이 들으실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 직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했을 때 재미를 느끼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마케터’라는 직무에서도 콘텐츠, 퍼포먼스 등으로 세부 분야가 나뉘듯 그 직무 안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경험하고 알아가면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턴 등의 형태로 직접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스를 얻으면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찾아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조언을 구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학교에서 선배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경험이 적은 선배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나 정보가 다르고 조금 더 연차가 있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 등에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보면 해당직무로 이어나갈 수 있는 커리어의 방향이나 실제 업무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들을 수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제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삶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로든 취미로든 제가 흥미를 갖는 것들을 더 깊게 알아볼 수 있는 에너지와 여건이 지속되는 삶이 되었으면 해요. 큰 목표 중 하나는 마흔에 은퇴하고 귀농하는 것인데,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 또 다른 진로의 고민을 하게 되네요.

매니저님이 생각하시는 일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해요. 다만 같은 밥벌이라도 얼마나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가를 찾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매니저님이 생각하시는 삶이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생각하는 만큼 보이는 만큼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야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관심을 가졌던 일이 커리어의 시작으로 바로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경험이 주는 것이 호기심일지 두려움일지에 대한 것은 아무도 모르기에, 매우 용기있는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매니저님께서 가지셨던 고민의 이야기는 커리어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때 관심을 가졌던 빈부격차라는 문제가 지금의 커리어로 이어지기까지 겪은 다양한 경험들은 모두의 귀감이 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더 나은 자신과 사회를 위해, 그리고 다니는 보람이 있는 회사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 소셜벤처 분야가 앞으로 가야 할 곳에 대한 지식을 얻은 기분이 들었다.

05

코디네이터. 사전을 찾아보니 조직하는 사람, 편성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결과물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들을 코디네이터라고 말한다.

이번 인터뷰에서 만난 이주선 활동가는 그녀를 코디네이터라고 소개한다. 청년 문제를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움직이기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 그녀의 명함에 적힌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라는 직함에서 다양한 역할과 그에 따르는 노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주선

신촌, 파랑고래 코디네이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 파랑고래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이주선이라고 합니다. 신촌에 위치한 파랑고래에서 프로그램 운영 보조하고 있고, 서대문구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코디네이터입니다.

신촌파랑고래는 어떤 곳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지어졌고, 원래는 경로당이었던 곳을 청년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한 공간이라고 알고 있어요. 신촌 지역에서 문화공간이나 청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청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지역주민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는 50대 이상 분들도 유튜브 같은 걸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청년부원과 지역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주신 명함을 보면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라고 써져 있던데, 코디네이터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프로젝트성으로 코디네이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 아니라서 올해까지가 계약이거든요. 해당 프로젝트가 올해까지니, 그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코디네이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는 서대문구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라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코디네이터가 '회사에 속해 있는' 코디네이터라면,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각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 내년에도 이 프로젝트가 추가로 연장될 때는 저의 계약이 연장되기도 하고, 혹은 다른 분께서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하신 건 신촌, 파랑고래가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그전에 직장 생활과 같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이름으로 명함이 나온 직장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신촌, 파랑고래에 일하기 전에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희망일자리로 청년 매니저 일을 한 적이 있고, 그 전에는 카페나 음식점 홀 매니저와 같은 서비스직 일을 많이 했어요. 신촌, 파랑고래에서 일하기 전에 잠깐 일했었던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와의 공통점은 주 타깃 고객이 청년층이었다는 점인 거 같아요. 다만 두 회사 생활의 결정적인 차이는 행정문서의 유무라 할 수 있겠네요.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굉장히 많아졌고, 키워드가 잡힌 간결한 기획서 작성에, 예산 처리도 하는 주어진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문어체로 된 메일을 주고받는 일도 잦아져 '나의 일상 말'에서 문어체로 바꾸는 일과 주어진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해야 하는, 소위 '규격'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내용이 똑같더라도 구성이 다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고생이 많으시겠군요.

실제로 그럴 때가 꽤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구상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추가할 건 없는지, 아니면 이전에 진행한 유사한 내용의 프로젝트로 기획안 작성된 게 있으면 저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굉장히 자주 묻는 편이에요. 완성된 기획안을 보거나, 비슷한 예시를 보면 그래도 혼자 끙끙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해서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첫 출근 당시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출근 첫날부터 출장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출근 첫날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서대문구 청년도전 지원 사업의 주 코디네이터라고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의 처신을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프로그램에 더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프로그램 내용에 더해 전달 수단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죠. 프로그램 운영하고 기획하는 입장에서 오프라인에서 강연하거나 했을 때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그 이후에 기억에 남으셨던 일은요?

열린 특강이라는 릴레이 강연을 기획하고 강연자분들을 섭외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섭외하고 싶은 분이 계셨는데, 메일을 보내려면 이름도 바꾸고 기획안도 바꿔서 보내야 되는데 다른 분의 메일이 가서, '나한테 온 메일이 아닌데?' 라며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웃음).

지금 하시는 일도 코로나 전후로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많이 달라졌죠. 정말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강점 덕분에, 정보격차나 지역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물론 Zoom을 사용했을 때가 더 좋은지 기존의 오프라인 참여가 더 좋은지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프로그램에 더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프로그램 내용에 더해 전달 수단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죠. 프로그램 운영하고 기획하는 입장에서도 오프라인에서 강연하거나 했을 때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이 힘든 것 같아요.

나의 선택이 옳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 때 당시 최선의 선택을 했으면 그걸로 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진로를 많이 바꿨지만, 결국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 때로 못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 당시에 충분히 고민했고, 그 당시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게는 모두 그런 선택들이었으니까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시면서 쌓으신 업무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업무 노하우까지는 아니지만, 만약 2시에 C라는 사람을 만나야하는데, 그 전에 A와 B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화가 나는 상황이 있었다라도 지금 만나는 C에게 표나지 않게 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 편이에요. 지금 만나야 하는 C가 굳이 나의 상황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C와 하는 일 결과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더라도

활동가님이 생각하시는 활동가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받고 감사히 생각했지만, 제가 활동가인가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활동가는 뭔가를 움직이는 사람인 거 같은데 내가 그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활동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게 2020년 8월 즈음이라고 기억하고 있고, 다른 활동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활동가의 정의에 대해서 '결과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은 없으신가요?

일적인 면과 사적인 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지에 대한 고민은 늘 가지고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힘들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일러스트를 잘 다루지 못하지만 만들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수치적인 분석을 위해 엑셀을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을지와 같은, 도구를 활용해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상사분과 의사소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요. 저는 제대로 전달했다고 생각해도 커뮤니케이션이 부드럽게 흐르지 않을 수 있고, 실무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 이해가 부족했던 경우도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 노력해요.

제 삶적으로 고민하는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크죠. 이제 제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제가 갑자기 이모가 됐다고 해서 무슨 이모냐고 했더니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엄청 기뻐했는데 한 세 시간 후에 생각을 해보니 나 지금 뭐하고 있지? 이 나이에 무엇을 해야 하지? 싶더라고요. 제 스스로의 길과 타이밍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원초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결코 일과 삶이
분리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일이 곧 내 삶이어야 하고,
일이 재밌어야 삶도 재밌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진로에 대한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시나요?

저는 진로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결론을 짓지는 못했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나중에 자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깨달음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에 대한 생각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일을 하시기 전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하는 생각과 이 일을 하시면서 든 생각의 차이가 있으신가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좋아해서 CS. 그러니까 고객 관리 쪽으로 취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물론 직업에 귀천이 없기는 하지만, 충분히 더 좋은 직장을 갈 수도 있는데 너무 낮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서, 선뜻 서비스직으로 못하고 중간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만 일하고 집에 와서는 제 삶도 있는 삶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작년에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나는 결코 일과 삶이 분리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일이 곧 내 삶이어야 하고, 일이 재밌어야 삶도 재밌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작년에 깨달은 것 같아요.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일이 힘들더라도 재밌게 살려면 무슨 일을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주위 사람들이 제가 청년 공간이나 청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게 잘 어울리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권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학교 과에 맞춘다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지금은 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제 스타일이 일과 삶을 따로 뗄 수 없다면, 굳이 떨어지지 않아도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는 오직 정규직만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안정성 때문에 정규직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계약직이어도 좋다는 생각을 들어요. 정규직이어도 결국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그만뒀야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활동가님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팁이 있으신가요?

저는 먹는 걸로 풀고, 스트레스가 퇴근 후에 오면 저는 일단 걸으려고 합니다.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음악을 들으며 걸으면 생각이 정리되거든요. 사무실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어폰을 꽂고 귀가 울리는 음악을 들어요. 동등덤을 통해서 뭔가 풀어지는 기분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쉽사리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라면, 등산을 간다거나 아니면 바닷가를 가거나. 그렇게 여행을 떠나거나, 저만 알고 있는 마음의 아지트로 떠나서 마음을 정돈할 때도 있어요.

높은 수입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신가요?

완전히 따로 두고 보지는 않아요. 경제적인 걸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하한선이 있는 거죠.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제 기준 아래로 준다고 하면 안 할 거 같아요. 대신, 그 기준이 충족되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아 보여도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월급이 높은 게 일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낮으면 안 된다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새롭게 배우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드림을 배우는 게 목표예요. 제가 그래도 공백 기간이 많은데 그 공백 기간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누르고 살았어요. 현실에 맞춰서 공무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디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잊었던 꿈이긴 한데, 사람 혼자 여러 개 영상을 찍은 다음 이어붙여서 합주하는 것처럼 만드는 영상 제작에 도전하고 싶어졌어요.

요즘에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글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음악도 있잖아요. 깊숙이 들어가 보니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집 기법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하다 보니 하고 싶은 게 아직은 참 많네요!

일을 정하시는 데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시다면?

일을 하면서 하나라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든 만났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배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이 일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해도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고, 잘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벤치마킹해서 배울 수도 있죠. 그렇게 어떤 일을 하든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제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만약 모든 기억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그렇게 되면 학교부터 다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시 다녀야 될 것 같네요. 그때는 피아노 전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술중학교 시험을 봤을 때까지는 꽤 많은 경험이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더라도 수입과 산출에 있어서 제가 이 돈을 투자하면 이런 산출이 나올 것인가를 너무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활동가에 더 맞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정해진 건 없다고 봅니다. 뭘 한다는 것 자체로도 이미 활동가니까요. 활동을 하다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일을 진행하면서 부딪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또다른 면모를 발견하기도 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활동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가의 꿈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어떤 걸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표현할 수 있는 자기만의 뭔가가 있으면 되는 거 같아요. 작가라는 거창함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쌓는 것이 필요하죠.

또 하나는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이 나든 칭찬을 받든 결국 어떤 성취를 위해 앞으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활동가가 되기 위해선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서, 몇 시간마다 생각이나 감정이 변할 수 있는 거고 상대방의 분위기에 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도 분명히 있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마음 속에 가지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활동가님은 그 '표현'함에 대해 현재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메모 툴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는 것 같아요. 의식의 흐름을 써 두면 나중에 그 메모를 썼을 당시로 돌아갈 수는 있거든요. 결국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지를 늘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 직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활동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첫 직장이 중요하다와 그렇지 않다, 이 두 개의 답 중 하나만 선택하기엔 어려운 질문인 거 같아요. 첫 직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선택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는 것들 속에 숨어있는 또다른 기회를 잊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합격통지를 받은 다음에 '일단 출근해서 상사분이나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자'라고 생각해서 갔어요. 더 넓게 시야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양한 경험이 발판이 되어야 그 위를 딛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에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자존감도 내려가고, 다른 사람들은 충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힘들 때가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에는 무엇이든 시도해 봄으로써 경험을 쌓으며 기회를 찾아나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며 성장하시는 걸 조언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제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활동가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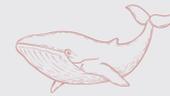
저는 요즘에 음악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붙은 달 모양을 발행되는 일에 뜨는 달에 맞춰 매번 바뀌게 설정을 해놨어요. 뉴스레터에 담긴 음악을 들을 때, 그 달 아래 우리는 함께 있다는 뉴스레터거든요. 그와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과 감화를 불러 일으키는 활동가가 되고 싶습니다.

활동가님이 생각하시는 삶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삶은 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삶과 일을 묶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앞에서 일과 삶을 뗄 수 없다는 말을 드렸으니까요. 제가 자라며 열매를 맺는 식물이라면,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 바로 저의 삶인 흙인 것이죠. 약간 단단해야 하고 물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는 땅, 분명히 그 속에는 뿌리를 상하게 하는 돌과 곤충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노력을 통해 제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저를 저답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활동가님이 생각하시는 일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식물에게 봤을 때 햇빛과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일은 햇빛과 바람이라서 햇빛은 일을 하면서 좋을 때를 의미하고, 바람은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시련을 의미해요. 바람이 있어야 저라는 식물이 자랄 수 있으니까요.



배움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방향일까?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그동안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른 개개인이 사회에서 서로 교류하며, 작은 하나라도 각각의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는 것이다. 인터뷰에서 이주선 활동가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그 표현을 통해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며 프로젝트들을 조율하고 있다. 그녀는 매 삶의 순간을 배우며 조율하는, 코디네이터다.

06

같음과 다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존재를 암시한다. 기준의 존재를 통해 이것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서는 단순히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없는 것들 또한 존재한다. 수량으로도, 성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는 단순히 이해타산의 논리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인터뷰를 나누게 된 조민정 매니저 또한 마찬가지다. 정말로 다양한 커리어를 통해 무엇이 자신이 더 잘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녀가 겪었던 일은 그 순간에는 '기준'을 댈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다양한 직무를 통해 멀티플레이어로서 활약하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조민정
상상우리 매니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민정입니다. 저를 소개하는 게 항상 좀 어렵네요. 현재는 상상우리 매니저, 마음챙김놀이터 운영진, 에니어그램이나 MBTI와 같은 자기분석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운영, 교육 기획, 디자인, 강의 등 다양한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다르게 소개할 수도 있겠네요!

이 영역 이전에 일했던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전공이 토목이라 건설사를 준비하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친구가 공기업을 준비해 보자고 해서 도로공사에 가게 된 게 첫 일의 시작이었어요. 지방 전체적으로 순환근무를 하는 구조였는데, 저는 친척들이랑 가족들도 다 서울에 있어서 지방에 살아본 경험이 없었어서 떨어져 지내는 그 자체가 조금 힘들었어요. 저는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어디로 갈지도 정해지지 않는 불안감도 두려웠고 기업 문화도 저랑 크게 맞지 않았어요.

건설회사에서 하셨던 일은 보통 어떤 일이셨나요?

건축설계나 플랜트설계, 아니면 공사 쪽으로 가면 현장으로 나가기도 해요. 도로공사에 응시하기 전에는 플랜트설계 쪽으로 지원했었어요.

도로공사에서 일하셨을 때 어떤 점에서 기업문화가 안 맞으셨나요?

웬만큼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위에서 지시하면 보통 따르는 성격인데, 거기는 글자 띄어쓰기 하나만 틀려도 퇴짜맞고 다시 해야 하는 문화가 되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공기업 특유의 경직성, 그리고 언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이 휩싸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입사지원하는 이유였던 평생직장이나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그런 니즈가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상사와의 트러블로 화감에 그만두게 됐지만 말이죠.

그 이후에 이쪽 분야를 알게 되신 거군요.

정말 의외의 계기였어요. 상사와 심하게 싸운 그 주말에, 서울에 갔다가 모교 축제에 가게 됐어요. 졸업한 이후에도 친구들과 학교 축제를 종종 갔는데, 열정대학이라는 곳의 홍보 포스터가 붙어있었던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다', '전공이 나랑 맞지 않다' 이런 질문이 엄청 크게 쓰여있던 부분에 제가 꽂힌 거죠. 그래. 나는 이 일이 맞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면서요. 운명이라고 느꼈죠.

열정대학에 들어가셨을 때의 느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열정대학은 3개월을 한 기수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알게 된 여러 프로그램들을 반년 정도 이것저것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청년의 진로를 고민하는 곳이 그곳의 모토였으니, 정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 주더군요. 책도 많이 읽고, 전문가를 많이 만나보게 하고, 공부하고 싶은 과목에 대해 직접 수업을 진행해 보는 과정 등, 6개월 동안 다양한 것들을 했어요. 이름이 좋아 보여서 토목과를 골랐을 정도로, 전공했던 내용이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 동안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겠다는 강한 일념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이후는 어떠셨나요?

6개월을 하고 인턴을 뽑는다고 해서 지원서를 썼어요. 일을 하다보니, 일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제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성장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정직원이 되었고, 교육 팀장까지 하게 되었어요. 교육을 전공한 것도 아니었는데, 팀장이라니 부담도 됐지만, 덕분에 '교육'이라는 가치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 단순히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요.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더 선한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제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

그리고 보니 열정대학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대학은 2018년에 문을 닫았는데요, 아쉬움도 크고, 여전히 그리운 마음도 남아있네요. 그래도 이 곳에서 만났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멋지고 좋은 사람들과 여전히 함께 교류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이후에는 에너지그램 강의나 독서모임 운영을 하면서 몇 달 지냈는데 열정대학 대표님 소개로 면접 제안을 받게 되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 곳에 들어오게 되셨군요.

네. 그런데 1년 조금 하다가 친구들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잠시 그만뒀었어요. 친구들과 뭔가 함께 계속 일을 하고 싶어서 말이지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러 연결을 통해 작년에는 노들섬에서 열린 마음챙김 컨퍼런스 코어팀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 컨퍼런스 준비를 하면서 디자이너로서의 일도 하게 되었죠.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일을 했네요.

매니저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가 명확한 분들이 계신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구체적인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막연하긴 하지만 뭔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더 선한 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일을 선택하는 기준은 따로 있으시나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해요. 같이 일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이 제게 제안하면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거의 다 'Okay'를 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사회적 문제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더라구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좋아하니까 같이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 공기업에서 일할 때도, 업무 스타일 자체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도 제게 어필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 경험을 하시면서 느낀 이 영역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노력 덕분에 누군가는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있기에, 내가 가진 것을 소모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 이걸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쉽게 느끼기 어려운 뿌듯함이지 않을까요.

현재 가지고 계신 고민이나 현실적 어려움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참 운 좋게도 지금까지 쪽 좋은 분들을 만나 즐겁게 일해왔어요! 다만 고민이 있다면, 앞으로의 커리어패스에 대한 고민인데요, 좋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도 즐겁지만 앞으로의 커리어나 플랜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불안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도, 즐겁게 일하고 있는 현재에 만족하면서 '미래는 어떻게 되겠지' 라고 넘어가게 되는 것 같네요.

나인투스식보다는 프리랜서가 더 성향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나인투스식스가 정확히 있는 게 엄청 편한 스타일이라 원래는 프리랜서가 맞지 않아요. 제 커리어를 살펴보면 교육 쪽에 있긴 했는데 직무로 봤을 때 통일되는 키워드가 딱히 보이지 않죠. 기획, 운영을 하긴 했었지만 또 디자인도 계속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야를 하게 될지에 대해 생각하면 상상이 잘 되지 않아요.

다시 일반회사로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드시나요?

더 배울 수 있는 회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계속 해온 것이 교육 쪽이니까 교육 분야의 기업이지만 거기서 어떤 직무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육 분야의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나?', '좋은 사람들이 있나?' 이런 느낌으로요.

“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꼭 근사하고 거창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의외의 상황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신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는 제 또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20대 때에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었고, 향후에는 경력직 여성분들을 위한 교육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하기 때문에 소셜쪽에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똑같이 다양한 곳에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의 경력을 가지고 굳이 학습지 파는 회사에 들어갈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앞으로 커리어를 어떻게 쌓을지는 결정되신 건가요?

저한테 어떤 기회가 오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은 이유가 그 경험 자체의 재미,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같이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진로에 대해서는 평생 생각하겠죠.

소셜벤처를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가치관의 영역이기도 한데요, 지금 내 주변의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를 바라고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소셜벤처에서 나름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가치관이 맞는 분이라고 해도 심적 여유가 아직은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소셜벤처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젠가는 이 분야에서 일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로를 찾는 과정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청년분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경험을 가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첫 직장과 첫 퇴사, 그리고 백수로 돌아와 열정대학을 다녔던 것, 이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꼭 근사하고 거창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의외의 상황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영역과 맞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에는 돈 말고도 나를 나답게 해주는 다양한 가치들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신 분이 라면, 누구든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계속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이 잘 맞거나, 뭔가를 함께 해보고 싶은 사 람들을 만나면 꼭 '다음에 할 때 나도 같이 하자'라고 말을 하고 했는데, 이 말이 다음 일 들로 연결되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 때, 저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 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계속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이 이 일을 지속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 고 있는 공통적인 니즈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남편이 원래는 건설사 플랜트 쪽에서 일을 하다 회사가 안 좋아지면서 다른 부서나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남편에게 지금 일하고 있는 곳과는 다른 분야를 제안했었 어요. 꼭 소셜섹터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선한 방향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남편은 현실적으로 본인의 성장에 좀더 초점을 맞춰기 때문에 남아있는 걸 선택했죠. 분 명히 만족감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그 성취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딱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좋은 사람들 속에서 보고 배우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 야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될테니까요!

매니저님이 생각하시는 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생각하는 일이란 '삶의 연장선'이다.”

“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 때
저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계속 연결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 일을 지속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

그렇다면 매니저님이 생각하시는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직장을 다닐 때는 일과 삶은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하고 일은 일일 뿐이란 생각이 강했어요. 다만 이 일을 하면서 점점 더 느끼는 건 삶과 일을 이어내는 분들이 참 멋있는 것 같다고 느껴요. 저 역시 삶의 중요한 가치가 일에서도 나타나고, 일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제 삶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해요.



나의 진정한 일은 언제 발견하게 되는 걸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기억하며, 셀 수 없을 많은 일들을 겪어가며 지금의 나로 성장한다.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친 순간은 무엇이였을까, 인터뷰를 진행하며 문득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 돈을 쫓아가지만, 세상에는 돈 말고도 나를 나답게 해주는 다양한 가치들이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여러 순간들 속에서 가치를 발견한다면, 그 순간이 좋은 나쁜 가치를 발견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불꽃을 붙이면 터지는 폭죽을 바라본 적이 있다. 검은 밤하늘을 수놓는 하나의 별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작은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더라도 그 열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면 더 큰 폭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어두운 밤하늘을 화려하게 빛내는 폭죽과도 같은 열정을 볼 수 있었다.

편집후기 '제 자랑은 아니지만'을 작업하며

소셜벤처는 특별하면서 미래의 보편적인 형태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소셜벤처의 정의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지닌 기업가가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혁신과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시작하면서 특별하고, 미래 사회에 더 많이 퍼져야 할 아이디어를 지금의 도전(Venture)을 통해 시작하기에 미리 만나게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들이었다.

어느 시점에서든 새로운 도전은 쉽지 않겠으나, 이번 인터뷰 프로그램을 통해 만났던 실무자들은 공통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어떤 일을 하든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분도 계셨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강한 분들이 모이는 곳을 소셜벤처라 정의하는 분도 계셨다.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일이 즐겁다고 생각한다면 희생이 아닌 양보라고 생각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소셜벤처의 실무자들의 모습에서 더 나아질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 그 중심에 소셜벤처가 있다.

선택을 돕는 교육회사, 커리어투어입니다.

커리어투어는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커리어투어는 자신만의 길(진로)을 찾는 과정이 행복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은 길고 복잡할 수 있지만
교육, 경험을 통해 좀 더 편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커리어투어가 함께합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편견 없이 바라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주)커리어투어
<http://www.careertour.co.kr>

지은이_김태희 외 5명 엮은이_김시은 펴낸이_김재홍
디자인_김소연 인쇄_프린터엑스 기획 및 제작_ (주)커리어투어

1판 1쇄 펴냄 2021/10/31

(주)커리어투어 02-6954-227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 605호(성동안심상가)